

공공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

- 부산시 사상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User's Perception Survey for the Validity of Establishment of a Public Libraries: Focused on Sasangu in Busan

강 은 영 (Eun Yeong Kang)**

목 차

- | | |
|-------------|------------------|
| 1. 서론 | 4. 부산시 사상구 현황 분석 |
| 2. 선행연구 | 5.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
| 3. 연구설계와 방법 | 6. 결론 및 제언 |

초 록

이 연구는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건립될 예정인 J도서관의 이용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확립을 위한 연구로, 지역사회분석과 이용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상구를 대상으로 인구분포현황, 문화기관현황, 사상구의 비전 등 지역사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사상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기존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현황과 향후 건립될 도서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이용의향 정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서나 잡지 등 충분한 인쇄자료의 신속한 제공에 대한 기대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공간의 경우 대체로 '열린 공간'과 '소규모 모임 공간(가족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화서비스의 경우 인문학, 예술(음악/미술), 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대체로 다양한 분야에 고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is a study to establish the feasibility in terms of the use of the J library, which will be built in Jurye-dong, Sasang-gu, Busan.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 community analysis and user survey to confirm the necessity of building a library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services that the library should provide in the future. To this end, a community analysis was conducted primarily on Sasang-gu, such as population distribution status, cultural institution status, and Sasang-gu vision. Afterwards, visitors to Sasang Library, Small Library, and Community Center were surveyed on the status of use of existing public libraries and the awareness of J Library to be built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necessity and intention to use J Library were found to be high, and the expectation for prompt provision of sufficient printed materials such as books and magazines was the highest. In the case of the desired space, the demand for 'open space' and 'small meeting space(family room)' was high. In the case of specialized services, there was a high demand for humanities, arts & music, movies, etc., but it was shown that they showed a general interest in various fields.

키워드: 이용자 인식조사, 지역사회분석, 이용적 타당성, 공공도서관, 도서관 기본 건립 계획

User's Perception Survey, Community Analysis, Utility Validity, Public Library, Library Basic Construction Plan

* 이 연구는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의 일부를 수정·재구성하였음.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ykang@silla.ac.kr / ISNI 0000 0004 6844 8725)

논문접수일자: 2020년 4월 11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5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79-104,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079>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에서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을 1,468개관으로 확대하여 1관당 봉사대상인구규모를 약 35,000명까지 줄이는 것을 추진과제로 설정한 정책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또한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9년 4월 15일에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통해 도서관을 주민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 중 하나로 선정하고, 모든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가 2017년에 마련한 ‘공공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공공도서관 수를 67개관으로 확대하여 1관당 봉사대상 인구를 50,000명 수준으로 낮추며, 이를 위해 도서관 수가 부족한 자치구·군의 도서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개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도서관부터 시작하여 20개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독서실 기능의 열람실 폐지와 자료실 위주의 공간구성 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소 왜곡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내실화를 위해 도서관구입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시민 1인당 장서수를 2020년까지 2.0권으로 늘리고,

사서의 인력수급도 개선하여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를 2020년까지 11,0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부산시 홈페이지). 이러한 정책추진의 배경에는 공공도서관 업무가 교육청에서 시·도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사무로 변경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지역 공동체 역할이나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나 그간 학습실과 공부방 위주의 시설에 더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산시 사상구에서는 주례동에 J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내 도서관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J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이용적 측면에서의 건립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후 향후 도서관 운영 단계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더불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J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의 지향점을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최근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조사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조사연구(노영희, 박양하 2017), 대구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윤희윤, 오선경, 이재민 2016),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요구(장덕현, 강은영 2012; 장덕현 2020)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영희, 박양하(2017)의 연구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객관적인 삶의 질 측정 지표인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적용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실제로 삶의 질에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하고, 나아가 사서가 인식하는 삶의 질 향상 정도와 일반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향상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총 45개 지표를 대상으로 81개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한 결과,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 평균이 3.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상향확산이론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서가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사서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총 13개로 나타나 사서가 인식하는 도서관의 영향정도가 높은 지표에 대해서는 이용자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용자를 위한 세심한 서비스 개발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희운, 오선경, 이재민(2016)은 공공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기관으로서,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

비스 대상인구에 대한 인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설문조사 방식을 선택하여 시민들의 공공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도서관 이용실태(도서관 이용목적과 이용정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평균 이용시간, 참여 서비스), 독서프로그램 참여현황, 도서관 확충이나 신설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접근성의 문제와 읽을 책이 없다는 점이 제시되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는 점과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장덕현, 강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주민들 1,050명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인프라와 서비스의 현 주소를 파악하였다. 공공도서관 이용빈도, 이용목적, 주된 이용시설과 도서관 관련 정보 입수경로, 공공도서관 접근성에 대한 인식,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도서관서비스(공간, 자료,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교육문화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용자들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부족, 접근성의 어려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부족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생활권 중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 디지털 서비스 확충과 자료 입수의 신속성 확보, 지역주민의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열린공간 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덕현(2020)의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

용빈도와 목적, 주 이용 시간대, 주 이용시설, 서비스 별 이용 여부와 만족도, 도서관에 대한 정보획득경로, 도서관 시 주 이용 교통수단과 소요 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더해 공공도서관과의 거리에 대한 인식정도, 공공도서관 수의 적절성,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의 필요성, 공공도서관 이용 의향과 기대사항,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요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공도서관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응답자의 2/3가량이 거주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추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6점, 중요도는 평균 4.10점으로 나타나 서비스 만족도가 이용자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수행된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역시 다문화서비스, 독서치료서비스, 노령자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되어 왔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연구도 있다(곽승진 외 2016; 곽승진 외 2017). 이에 더해 최근 공공도서관의 기능적, 물리적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도 있다(최문정, 서은경 2016; 노영희, 김윤정 2019). 이상의 연구와 같이 대부분 인식조사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위치한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사회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반면, 지역사회 3곳을 선정하여 해당 사회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 지역주민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분석이라기 보다는 기존 도서관 운영방안의 개선을 위해 실시되었다(김희수, 김기영 2014).

이처럼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다음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요구와 인식을 조사하여, 신설 도서관 건립계획에 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설계와 방법

3.1 연구절차

이 연구는 J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기존 공공도서관과 J도서관 건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건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사상구 행정구역 상 인구분포 현황, 사상구의 비전, 관내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과 문화기관의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분석을 실시하였다.

J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위해 사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사상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중 운영이 가장 활성화되어 이용자가 많은 주례 썸지 작은도서관과 사상 작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이용자와 주민자치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작은도서관

의 경우 규모가 매우 적고, 특정 프로그램이 개최될 때만 소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2개관만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용자 인식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의견까지 포함하여 수렴하는 것이므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이용자 이외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잠재적 이용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 인근 주례 1동, 주례 2동, 주례 3동 주민센터에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행정구역상 사상구에는 총 8개동이 위치하지만, J도서관이 건립될 부지는 주례동 인근이며 주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주례동 주민센터 3개소로 범위를 제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2 설문내용과 방법

설문문항은 크게 기존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

한 사항과 건립 예정인 J도서관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장덕현, 강은영(2012)의 연구, 윤희윤, 오선경, 이재민(2016)의 연구, 장덕현(2020)의 연구 등 3개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사상구청 담당자와 관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의견 수렴을 3차례 거쳐 문항을 최종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조사원들이 직접 총 550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으며, 20부는 응답내용이 너무 부실하여 제외하고 53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 452명과 이용경험이 없는 이용자가 7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서관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 부분에서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그룹과 이용경험이 없는 그룹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 이용자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이용목적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도서관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 •도서관 방문(편도) 되는 시간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이유
J도서관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J도서관 건립 시 이용 의향 •J도서관 건립 시 특화 희망 서비스 •J도서관 건립 시 필요 공간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기대정도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최종학력, 연령, 직업, 거주지 등

4. 부산시 사상구 현황 분석

4.1 사상구 현황

4.1.1 일반현황

부산광역시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상구는 도심지 내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산업·물류·유통이 발달한 부산경제 중심도시, 서부산권의 관문으로서 공항·항만·육로가 두루 연결되는 광역교통 거점도시, 천혜의 자연생태계 보고인 낙동강 둔치가 있는 생태환경 강변도시이다. 사상구의 면적은 36.09km²(부산시 전체면적 769.96km²의 4.7%)이며, 법정동 8개동,¹⁾ 행정동 12개동으로 구성된다. 2019년 4월 현재, 사상구의 주민등록인구는 221,994명으로, 행정동을 기준으로 보면 학장동, 엄궁동, 모라1동 순으로 인구가 많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4.9%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사상구 전체 인구(221,994명) 중 외국인(7,445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가량이며, 주례1동, 주례2동, 주례3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수 총 1,648명으로 사상구 전체 외국인수(7,445명)의 2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국가통계포털).

사상구는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비전으로 하고 ‘청렴한 구정과 소통’, ‘상생하는 지역경제’, ‘품격있는 교육문화’, ‘함께하는 안전도시’를 4대 구정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대 핵심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명품 문화·교육 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상 제2도서관 건립과 예술창작촌 및 예술특화

거리 조성 등 문화·교육 인프라 투자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사상구청 홈페이지(사상Vision)).

4.1.2 J도서관의 주변 환경과 공간구성 방향

J도서관이 건립될 지역은 대지 기준으로 1Km 권역 안에 주로 아파트 단지 중심의 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서대학교, 동주중학교, 동주초등학교, 주례여자중학교, 주학초등학교, 주양초등학교 등 6개의 학교가 분포하고 있다. 대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북사면으로 남쪽으로 폭 6-7m의 도로와 접합해 있어, 지하 2층(주차장 등)을 제외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스텝 가든을 형성하여 모든 층을 지상에서 계단을 통해 바로 출입 가능한 형태로 건립할 계획이다. 대지가 기울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스텝 가든과 외부 보행로를 조성하여 대지전체가 공원화, 가로수화될 수 있도록 계획가능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층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며, 지상3층은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조성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J도서관은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개념에서 나아가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4.2 사상구 문화시설과 공공도서관 현황

4.2.1 문화시설

사상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문화시설은 사상평생학습관, 모라평생학습관, 사상생활사박물관, 다누림센터, 사상갤러리, CATs사상

1) 삼락동, 모라동, 덕포동, 폐법동, 감전동, 주례동, 학장동, 엄궁동

인디스테이션, 감전생활문화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사상평생학습관(감전동)과 모라평생학습관(모라1동)은, 평생학습 및 학습계좌제 거점기관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소외계층에 대대상생활사박물관(삼락동)은 사상의 생활사 변천과정을 전시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곳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전문가와 행정이 협업하여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누림센터(학장동)는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여가 공간 확충,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 산업, 환경, 체육,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체육센터, 보육시설(다누림어린이집, 국공립), 사상문화원, 다누림홀(공연장), 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업발전협의회 등의 시설이 소재하고 있다. 사상갤러리(감전동)는 사상구민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괘법동)은 부산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젊음이 넘치는 청년 인디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전생활문화센터(감전동)는 북카페, 동아리실, 음악실, 마루연습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체험 위주의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사상구청 홈페이지(문화기관)). 결과적으로 사상구 전체의 문화기관 인프라는 적당한 수준에서 구축되어 있으나, 주례동에는 관련 문화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4.2.2 공공도서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상구의 경우 문화시설은 대체로 잘 구비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문화시설은 주례동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사상구 전체 공공도서관 인프라 역시 매우 취약한 편이다.

사상구의 공공도서관으로는 사상구가 운영하는 사상도서관이 유일하며, 사상도서관 1층(647.92㎡)에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가 운영하는 부산점자도서관이 위치해 있다(〈표 2〉 참조).

〈표 2〉 사상구 관내 공공도서관 현황(2020.3)

도서관명		사상도서관
설립주체		지자체
개관년도		2003
소재지		덕포동
시설	부지면적(㎡)	6,634.00
	연면적(㎡)	3650.00
	총 좌석 수(석)	667
자료	소장도서(책)	151,271
	소장 비도서자료(잡)	12,677
	소장 정기간행물(종)	53
인력	총 사서 수(명)	6

부산시 공공도서관 인프라 현황을 자치구·군별로 비교해보면, 사상구는 1관 당 인구수, 주민 1인당 장서수, 사서(정규직)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 등 모든 면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표 3〉 참조).

〈표 3〉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구·군별 현황(2019.3)

구분	공공도서관 수(관)	1관 당 인구수(명)	주민 1인당 장서수(권)	사서 1인당 인구수(명)
기장군	5	32,330	2.27	11,547
금정구	2	122,235	1.43	13,582
북구	5	60,585	2.07	11,219
강서구	1	117,382	0.86	39,127
사상구	1	229,219	0.59	38,203
부산진구	4	92,926	3.01	8,260
연제구	2	103,371	1.10	18,795
동래구	3	90,242	0.94	20,825
해운대구	6	68,673	1.82	11,773
수영구	2	89,998	1.07	25,714
남구	1	273,854	0.82	27,385
동구	2	44,434	2.26	11,109
중구	1	44,218	6.61	3,685
영도구	2	61,761	1.58	15,440
서구	1	110,039	1.42	13,755
사하구	2	166,651	0.82	27,775
부산시	40	86,766	1.57	14,644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 2019년 현재 사상구 관내에는 공립작은도서관 8개관²⁾과 사립작은도서관 6개관³⁾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4개관은 담당자가 부재한 상태로 운영 중이다.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사상구의 문화시설 인프라는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부산시 전체지역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대표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사상구 관내 덕포동에 건립중이며, 2020년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가 지역대표도서관 입지를 덕포동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의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자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수혜지는 사상구 주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도서관법」 제23조에 규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의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은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다르므로 부산도서관의 건립이 사상구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기능으로 대체될 수는

2) 고맙습니다 보물섬 작은도서관, 꿈나래 작은도서관, 모라1동 작은도서관, 여성문화회관 도서정보 작은도서관, 사상 작은도서관, 엄궁쌈지 작은도서관, 주례쌈지 작은도서관, 학마을 작은도서관.
3) 다문화도서관, 샘물 작은도서관, 어린이·가족도서관 꿈꾸는 글나라, 한울타리 작은도서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햇살나무 작은도서관.

없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도 J도서관의 건립 계획의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과정에서 실시된 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 순현재가치 193억 3,345만 9천원, 내부수익률 8%, 비용편익비율 1.2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비율 \geq 1, 순현재가치는 0 이상, 내부수익률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J도서관 신축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역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181명(34.2%), 직업별로는 대학(원)생이 133명(25.1%), 거주지역 별로는 주례3동이 83명(16.0%), 주례2동이 66명(12.7%)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 결과는 J도서관이 건립될 부지 근처와 공공도서관에서 표본을 선정한 것이므로 사상구 전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으나, 도서관이 건립될 주례동 주민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운영에 참고할 기초 데이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5.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성별, 최종학력, 연령, 직업, 거주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289명(54.5%), 최종학력별로는 대졸자가 219명(41.3%),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5.2 도서관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5.2.1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452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1주일에 1회'가 83명(1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에 2-3회' 76명(16.8%), '일년에 1-2회' 72명(15.9%), '한달에 2-3회' 76명(16.8%), '일주일에 2-3회'와 '한달에 1회' 각 63명(13.9%), 62명(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년에 3-4

〈표 4〉 응답자의 특성

구분		응답자수(비중, %)
성별	남	233(44.0)
	여	289(54.5)
	무응답	8(1.5)
	계	530(100.0)
최종학력	중졸이하	84(15.8)
	고졸	61(11.5)
	대재	142(26.8)
	대졸	219(41.3)
	대학원졸	15(2.8)
	무응답	9(1.7)
	계	530(100.0)

구분		응답자수(비중, %)
연령	10대	80(15.1)
	20대	181(34.2)
	30대	82(15.5)
	40대	105(19.8)
	50대	53(10.0)
	60대	21(4.0)
	70대 이상	0(0.0)
	무응답	8(1.5)
	계	530(100.0)
직업	초·중·고등학생	79(14.9)
	대학(원)생	133(25.1)
	진학·취업준비생	32(6.0)
	주부	55(10.4)
	사무직	120(22.6)
	생산직	15(2.8)
	서비스직	22(4.2)
	자영업	19(3.6)
	전문직	23(4.3)
	은퇴자	6(1.1)
	기타	18(3.4)
	무응답	8(1.5)
	계	530(100.0)
거주지	삼락동	12(2.3)
	모리1동	35(6.7)
	모리3동	17(3.3)
	덕포1동	33(6.3)
	덕포2동	37(7.1)
	괘법동	54(10.4)
	감전동	43(8.3)
	주례1동	55(10.6)
	주례2동	66(12.7)
	주례3동	83(16.0)
	학장동	25(4.8)
	엄궁동	26(5.0)
	기타	19(3.7)
	무응답	13(2.5)
	계	530(100.0)

회'라고 응답한 이용자도 48명(10.6%) 있었다. 이용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4.9%(248명)의 월 2-3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이 어디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8%에 해당하는

〈표 5〉 공공도서관 이용빈도

구분	응답자수(비중, %)	구분	응답자수(비중, %)
거의 매일	27(6.0)	일년에 3-4회	48(10.6)
일주일에 2-3회	62(13.9)	일년에 1-2회	72(15.9)
일주일에 1회	83(18.4)	기타	14(3.1)
한달에 2-3회	76(16.8)	무응답	6(1.3)
한달에 1회	63(13.9)	합계	452(100.0)

〈표 6〉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구분	응답자수(비중, %)	구분	응답자수(비중, %)
사상도서관	252(55.8)	다문화 도서관	3(0.7)
고맙습니다 보물섬 작은도서관	4(0.9)	샘물 작은도서관	0(0.0)
꿈나래 작은도서관	2(0.4)	어린이·가족도서관 꿈꾸는 글나라	0(0.0)
모리동 작은도서관	13(2.9)	한울타리 작은도서관	2(0.4)
여성문화회관 도서정보자료실	4(0.9)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2(0.4)
사상 작은도서관	30(6.6)	햇살나무 작은도서관	2(0.4)
업궁 찻지 작은도서관	9(2.0)	기타	76(16.8)
주례 찻지 작은도서관	43(9.5)	무응답	8(1.8)
학마을 작은도서관	2(0.4)	합계	452(100.0)

252명이 사상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사상도서관을 제외한 작은도서관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은 주례 찻지 작은도서관 43명(9.5%)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사상구 외 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76명(16.8%)이라는 점인데, 이들은 대부분 인근의 구포도서관이나 구덕도서관 그리고 시민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상도서관은 지하철역과도 근접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라는 점과 사상구 내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취약함이 결국 관외 공공도서관 이용자수와 직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용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자료(책, DVD 등)를 찾거

나 빌리기 위해’가 322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자격/학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191명(22.9%),⁴⁾ ‘휴식/지인과의 만남을 위해’ 117명(14.0%), ‘문화프로그램(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99명(11.8%),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하기 위해’ 78명(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최근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을 넘어서 특별하고 수준높은 문화 프로그램, 고급스럽고 개방감을 주는 공간, 컴퓨터 기기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공간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의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미

4) 〈표 4〉 응답자의 특성에서, 20대가 181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4.2%에 해당하는 결과와 맞물리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공공도서관 이용목적(복수응답)

구분	응답자수(비중, %)
자료(책, DVD 등)를 찾거나 빌리기 위해	322(38.5)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하기 위해	78(9.3)
취업/자격/학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191(22.9)
문화 프로그램(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99(11.8)
휴식/지인과의 만남을 위해	117(14.0)
기타	29(3.5)
합계	836(100.0)

디어테크, 인포메이션 커먼스, 라키비움이라는 개념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공공도서관 기능의 복합화 현상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핵심은 '장서'이며 수준높은 자료의 충분한 확보야말로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사실을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은 직업 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직업에 따라 목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그룹에서 '자료열람과 대출'이 주된 목적을 차지했으나, 자영업(57.9%), 사무직(46.7%), 주부(45.5%), 서비스직(45.5%) 등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자료열람과 대출'을 제외한 경우, '문화프로그램 참여'는 주부(23.9%)와 전문직(25.0%) 집단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격/학교 공부'는 진학·취업준비생(37.5%)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생(27.0%), 초·중·고등학생(26.3%), 전문직(25.0%), 생산직(20.8%) 그룹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개방형 기술 코너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특색있는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의 의견을

기술한 결과를 통해, 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은 연령이나 직업 별로 세분화된 요구를 조사하여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을 방문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191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보' 141명(31.2%), '자가용 이용' 95명(21.0%), '자전거' 12명(2.7%) 등으로 나타났다. '도보'로 도서관이용을 하는 이용자가 31.2%로 다소 높게 나온 것은 사상도서관 내에서 일정 부분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기인하며, 이들의 경우 대부분 사상도서관 인근에 거주하는 이용자라고 볼 수 있다(〈표 9〉 참조).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사상구에는 공공도서관이 1개관 밖에 없기 때문에 개방형 기술결과에서 '걸어서 갈수 있는 도서관', '집과 가까운 도서관',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 등에 대한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어 도서관 인프라의 취약성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도서관 방문 시 소요시간을 질문한 결과, '15-30분'이 212명(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분 미만' 148명(32.7%), '30분-1시간' 69명(15.3%), '1시간 이상' 17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났

〈표 8〉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직업별)(복수응답)

구분	초·중· 고등학생	대학 (원)생	진학·취업 준비생	주부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자영업	전문직	은퇴자
자료열람과 대출	51 (32.7)	87 (36.1)	18 (28.1)	40 (45.5)	91 (46.7)	9 (37.5)	15 (45.5)	11 (57.9)	14 (38.9)	3 (30.0)
문화프로그램 참여	11 (7.1)	20 (8.3)	5 (7.8)	21 (23.9)	29 (14.9)	3 (12.5)	4 (12.1)	2 (10.5)	9 (25.0)	0 (0.0)
컴퓨터(인터넷)이용	3 (1.9)	32 (13.3)	8 (12.5)	2 (2.3)	18 (9.2)	3 (12.5)	2 (6.1)	3 (15.8)	2 (5.6)	2 (20.0)
휴식/지인과의 만남	35 (22.4)	33 (13.7)	8 (12.5)	12 (13.6)	20 (10.3)	4 (16.7)	7 (21.2)	1 (5.3)	0 (0.0)	3 (30.0)
취업/자격/학교 공부	41 (26.3)	65 (27.0)	24 (37.5)	9 (10.2)	35 (17.9)	5 (20.8)	4 (12.1)	1 (5.3)	9 (25.0)	1 (10.0)
기타	15 (9.6)	4 (1.7)	1 (1.6)	4 (4.5)	2 (1.0)	0 (0.0)	1 (3.0)	1 (5.3)	2 (5.6)	1 (10.0)
합계	156 (100.0)	241 (100.0)	64 (100.0)	88 (100.0)	195 (100.0)	24 (100.0)	33 (100.0)	19 (100.0)	36 (100.0)	10 (100.0)

〈표 9〉 공공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구분	응답자수(비중, %)	구분	응답자수(비중,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191(42.3)	도보	141(31.2)
자가용	95(21.0)	기타	5(1.1)
자전거	12(2.7)	무응답	8(1.8)
합계		452(100.0)	

다(〈표 10〉 참조). 다만, 교통수단과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거주지 별로 비교분석 한 결과, 눈에 띄게 차이점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10〉 공공도서관 방문(편도)에 소요되는 시간

구분	응답자수(비중, %)
15분 미만	148(32.7)
15-30분	212(46.9)
30분-1시간	69(15.3)
1시간 이상	17(3.8)
무응답	6(1.3)
합계	452(100.0)

기존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

사한 결과,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료제공서비스가 공간/시설 제공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19〉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 정도를 질문한 결과, ‘도서, 잡지 등 풍부한 인쇄자료’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관련성이 있다. ‘공간/시설 제공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기존도서관의 리모델링이나 신축 도서관 건립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보다 풍부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1〉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구분	응답자수(비중, %)						평균(M)	표준편차(Std)	Cronbach 알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무응답			
자료제공서비스 - 도서대출과 열람, 디지털자료 이용 -	152 (33.4)	208 (46.0)	73 (16.1)	6 (1.3)	0 (0.0)	14 (3.1)	4.15	0.741	.817
공간/시설 제공 서비스 - 열람실, 컴퓨터실, 휴게공간 -	135 (29.9)	170 (37.6)	110 (24.3)	14 (3.1)	2 (0.4)	21 (4.6)	3.98	0.861	.805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 문화/독서/평생학습 프로그램 -	123 (26.5)	175 (38.7)	110 (24.3)	17 (3.7)	1 (0.2)	26 (5.8)	3.94	0.847	.861

5.2.2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4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0.8%로 나타났다. 사상도서관의 경우 평일에는 이용시간 연장을 실시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일은 6시까지, 주말은 1시까지 등으로 대부분 운영시간이 다소 제한적인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7명(21.8%),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2명

(15.4%), '집이나 직장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이용자는 7명(9.0%) 등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최근 삶의 수준이 향상되어 책을 사보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혹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항목에 응답한 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는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표 12〉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응답자수(비중, %)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17(21.8)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5(6.4)
도서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몰라서	2(2.6)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24(30.8)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12(15.4)
집이나 직장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7(9.0)
기타	4(5.1)
무응답	7(9.0)
합계	78(100.0)

리한 격차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존재하며,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와 문화향유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차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서관은 잠재적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집이나 직장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가 많지 않으나, 이는 이용경험이 없는 일부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설문문의 마지막 단계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도서관 이용 시 접근의 용이성’에 대한 기대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재 사상구 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표 19〉 참조).

5.3 J도서관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89명(73.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표 13〉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가 사상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그리고 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 인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상구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사상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미 기존 도서관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상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 건립 이후 이용의향 결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인용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이 건립될 부지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개방형 질문 코너에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이 다수 있었다.

“주례도서관 건립예정지인 주례3동은 주거인구는 많으나 교육 또는 아이들이 가족과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연령대의 인구유출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게 살기 좋은 사상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까이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어서 책도 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도록 꼭 설립해주세요.”(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서 이용하고 싶습니다.”(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표 13〉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응답자수(비중, %)							평균(M)	표준편차(Std)	Cronbach 알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합계			
160(30.2)	229(43.2)	116(21.9)	13(2.5)	4(0.8)	4(0.8)	530(100.0)	4.05	0.819	.710

“특색을 살려 운영한다면 좋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서관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⁵⁾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16명(21.9%)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거주지 등 변인 별로 비교 분석을 한 결과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사상구내 각 동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1-2개 가량 조성되어 있어 현재 도서관 인프라에 적당한 만족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도 적당히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그룹과 이용경험이 없는 그룹 간 약간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그룹의 경우 건립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이용자가 34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6.8%로 나타난 반면, 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비이용자의 경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경우가 전체 이용자의 56.5%로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에 비해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 많은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어 이용경험이 없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J도서관 건립 시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344명(64.9%)이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수의 응답자가 새로운 도서관의 건립과 그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건립 이후 의향 역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다만, 건립의 필요성에 비

〈표 14〉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용자/비이용자)

구분	이용자	비이용자
매우 필요하다	141(31.2)	19(24.4)
필요하다	206(45.6)	25(32.1)
보통이다	88(19.5)	30(38.5)
필요하지 않다	9(2.0)	4(5.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0.9)	0(0.0)
무응답	4(0.0)	0(0.0)
합계	452(100.0)	78(100.0)
평균(M)	4.05	3.76
표준편차(Std)	0.819	0.885

5)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J도서관 건립 시 이용의향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신뢰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표 15〉 J도서관 건립 이후 도서관 이용 의향

응답자수(비중, %)							평균 (M)	표준편차 (Std)	Cronbach 알파
매우 있다	다소 있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합계			
133(25.1)	211(39.8)	122(23.0)	36(6.8)	16(3.0)	12(2.3)	530(100.0)	3.87	0.968	.740

해 이용의향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모든 이용자들로부터 새로운 도서관의 건립이나 해당 도서관의 이용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도서관이 건립되어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서관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것만이 최선임을 알 수 있다.

J도서관 건립 시 응답자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카페와 같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북카페)'를 희망하는 경우가 327명(2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나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패밀리 룸)' 183명(12.6%), '공원

등 외부 자연환경을 조성한 쉼터 공간' 171명(11.8%),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 154명(10.6%),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147명(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희망하는 공간에 대한 결과를 나이, 성별, 직업, 연령, 이용경험 유무 등의 항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연령 별로 미비한 차이가 있었으나 큰 의미는 없었으며 이외의 항목에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술한 지역사회분석현황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4.9%에 해당되어 노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희망하는 공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60대 이상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카페와 같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북카페)'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과

〈표 16〉 J도서관 건립 이후 이용 의향(이용자/비이용자)

구분	이용자	비이용자
매우 있다	122(32.2)	12(15.4)
다소 있다	189(41.8)	24(30.8)
보통이다	97(21.5)	26(33.3)
별로 없다	24(5.3)	12(15.4)
전혀 없다	12(2.7)	4(5.1)
무응답	8(1.8)	0(0.0)
합계	452(100.0)	78(100.0)
평균(M)	3.87	3.36
표준편차(Std)	0.968	1.081

〈표 17〉 도서관 건립 시 필요한 공간(복수응답)

구분	응답자수(비중, %)		
	이용자	비이용자	합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패밀리 룸)	159(12.8)	24(11.7)	183(12.6)
카페와 같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북카페)	283(22.7)	44(21.5)	327(22.6)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	134(10.8)	20(9.8)	154(10.6)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장	94(7.6)	14(6.8)	108(7.5)
미술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갤러리)	61(4.9)	13(6.3)	74(5.1)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127(10.2)	20(9.8)	147(10.2)
대활자본이나 시력확대기 등을 구비하여 노년층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66(5.3)	12(5.8)	78(5.4)
독서회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소모임공간(그룹스터디룸/동아리공간)	112(9.1)	17(8.3)	129(8.9)
공원 등 외부 자연환경을 조성한 쉼터 공간	139(11.2)	32(15.6)	171(11.8)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체험 공간	59(4.7)	8(3.9)	67(4.6)
기타 공간	9(0.7)	1(0.5)	10(0.7)
합계	1,243(100.0)	205(100.0)	1,448(100.0)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패밀리 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년층의 경우 어린이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활자본이나 시력확대기 등을 구비하여 노년층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도 나타나 해당 시설과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표 17〉 참조).

이처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는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있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패밀리 룸은 현재 몇몇 공공도서관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방문한 김해올하도서관에서도 자료실 내에 유리 벽면으로 출입문을 만들어 내부에는 좌식 테이블과 낮은 서가를 구비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에 따르면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공간으로 예약제로 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밀리 룸과 유사한 형태의 소모임 공간 즉, 자유롭게 스터디, 토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도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한 이용자도 있었다.

“도서관이 쉼터와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장년층,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테마와 공간을 제공해줬으면 좋겠고, 야외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원도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와 이동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이러한 응답결과는 최근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의 범위가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러한 요구의 변화에 따라 최근 공공시설의 복합화가 공공도서관의 영역에서도 진행 중이다. 복합화는 고유기능을 가진 2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대지 내에 건설되는 것(안창모 1987) 혹은 각기 독립적인 용도의 시설물이 한 부지나 건물에 물리적·기능적으로 통합되어 건립된 것(최문정, 서은경 2016)을 의미한다. 복합화를 통해 대지와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다양한 시설의 이용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복합화의 목적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를 관련 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 내에서 기존 공공도서관이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J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주된 기능으로 하지만 1개층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조성하여 도서관과 함께 운영하는 물리적 복합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리적 복합화란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부지 내에 다양한 문화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지역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능한 한 동일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류태현, 고재민, 임채진 2013).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내 청소년교육센터팀을 두어 기존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청소년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개층

을 할애하여 청소년교육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합화의 사례로 들 수 있다.

현재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직은 별도로 존재하며 기존 사상구에서 운영하던 조직을 도서관으로 통합하는 개념이지만, 한 건물에서 2개의 조직이 공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J도서관이 건립될 부지 북측 방향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쉼터 공간 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J도서관 건립 시 희망하는 특화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인문학’ 151명(10.6%), ‘예술(음악/미술)’ 145명(10.2%), ‘영화’ 130명(9.1%), ‘문학’ 128명(9.0%), ‘진로/취업’ 117명(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인문학 > 예술(음악/미술) > 영화 > 문학 > 진로/취업 > 어린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역사 > 인문학 > 예술(음악/미술) = 영화 = 문학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문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다소 다른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희망하는 특화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나이, 성별, 직업, 연령 등의 항목과 비교 분석한 결과, 희망 공간에서와 유사하게 연령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외의 항목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희망하는 공간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1순위 응답항목이 동일하였으나 특화서비스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10대는 청소년 > 예술 > 영화 등의 순으로, 20대는 영화 > 인문학 > 문학 = 진로취업 등의 순

〈표 18〉 J도서관 건립 시 희망 특화서비스(복수응답)

구분	응답자수(비중, %)		
	이용자	비이용자	합계
인문학	128(10.5)	23(11.2)	151(10.6)
예술(음악/미술)	127(10.4)	18(8.7)	145(10.2)
웰빙	52(4.2)	5(2.4)	57(4.0)
영화	112(9.2)	18(8.7)	130(9.1)
역사	79(6.5)	30(14.5)	109(7.7)
문학	110(9.1)	18(8.7)	128(9.0)
심리/상담	81(6.7)	14(6.8)	95(6.7)
여행	60(4.9)	15(7.3)	75(5.3)
4차 산업혁명	51(4.2)	6(2.9)	57(4.0)
어학	70(5.8)	12(5.8)	82(5.8)
진로/취업	103(8.5)	14(6.8)	117(8.2)
어린이	97(8.0)	11(5.4)	108(7.6)
청소년	92(7.6)	12(5.8)	104(7.3)
실버(노년층)	41(3.4)	9(4.4)	50(3.5)
기타	12(1.0)	1(0.5)	13(0.9)
합계	1,215(100.0)	206(100.0)	1,421(100.0)

으로, 30대는 인문학 = 문학 > 어학 등의 순으로, 40대는 어린이 > 예술 > 인문학 등의 순으로, 50대는 경우 인문학 > 역사 > 어린이 = 실버노년층 등의 순으로, 60대는 웰빙 > 인문학 > 심리상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에서 '청소년'이라는 주제가 1순위로 꼽힌 것은 그들이 인생의 전반기에서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속해 있고 그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도서관에서 제공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40대에서 '어린이'라는 주제가 1순위로 꼽힌 것은 해당 연령대가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세대라는 점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50대와 60대의 경우 인문학과 웰빙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 방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여가시간을 보내거나 자기계발을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많다는 점과 일맥상통한

다. 특히 사상구의 경우 노년층 인구의 분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주제의 자료와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장되고 이용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사상구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에 대해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보았다.

조사 결과, '도서관 이용 시 접근의 용이성'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기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접근성'이라는 용어는 많은 이용자들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도서, 잡지 등 풍부한 인쇄자료' 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내부 공간배치의 효율성과 여유', '신간자료의 신속한 확보', '이용자(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인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등에

〈표 19〉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정도

구분	응답자수(비중, %)						평균(M)	표준편차(Std)	Cronbach 알파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무응답			
도서, 잡지 등 풍부한 인쇄자료	253	184	65	3	0	28	4.37	0.727	.888
DVD, 전자책, 전자저널 등 풍부한 디지털자료	156	215	88	11	2	28	4.14	0.803	.891
신간자료의 신속한 확보	234	187	73	3	2	31	4.30	0.766	.888
도서관 홈페이지의 활용성	166	190	129	16	1	28	4.01	0.859	.888
도서관 내부 공간배치의 효율성과 여유	235	190	74	4	0	27	4.31	0.742	.885
도서관 이용 시 접근의 용이성	293	149	60	4	0	24	4.45	0.724	.890
문화프로그램(교양강좌, 독서교실)의 다양성	167	206	111	17	0	29	4.07	0.834	.890
이용자(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인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222	207	69	4	2	26	4.30	0.748	.887
도서관 사서의 서비스 수준과 마인드	231	171	93	6	1	28	4.25	0.801	.886
도서관 외부 공간의 활용(공원이나 쉼터)	208	181	103	11	0	27	4.18	0.823	.891
도서관 서비스 홍보의 활성화	166	183	140	12	2	27	4.01	0.862	.886

대한 기대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서관 서비스 홍보의 활성화’는 다른 항목에 비해 평균값은 높지 않았지만, 개방형 기술항목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일상생활화로 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의 필요성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정보도 주례지역 아파트 공고문에 알려주시면 많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결론 및 제언

현재 부산시 사상구에는 사상평생학습관 등

7개 가량의 문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작은 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은 1개관에 머무르고 있어 공공도서관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향후 건립될 J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공간과 소통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패턴과 도서관에 기대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도서관 인식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절반 이상(248명(54.9%))이 한달에 2-3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은 사상도서관(252명(55.8%))으로 나타났다. 1개의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의 주된 이용 목적은 ‘자료(책, DVD 등)를 찾거나 빌리기 위

해'(322명(38.5%))로 나타났으며, '취업/자격/학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191명(22.9%), '휴식/지인과의 만남을 위해' 117명(14.0%), '문화 프로그램(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99명(11.8%) 등의 목적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관 방문 수단으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191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보' 141명(31.2%), '자가용 이용' 95명(21.0%), '자전거' 12명(2.7%) 등으로 나타났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에 대한 의견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취약함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접근성이 떨어져 다른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76명(16.8%)이라는 점 역시 이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89명(73.2%)로 나타나 많은 지역주민이 새로운 도서관 건립에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 382명(78.5%)이었으나 이용경험이 없는 그룹에서는 44명(54.4%)으로 그룹 간의 의견차이는 다소 있었다. 이용경험이 없는 그룹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많았던 만큼, 신설되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보다 강화된 자료와 서비스로 향후 이용자층으로 유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도서관 건립 이후 이용 의향을 질문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344명(64.9%)으로 나타나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의용 의향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넷째, 도서관 건립 시 희망하는 공간에 대한

조사결과, '카페와 같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북카페)'를 희망하는 경우가 327명(2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패밀리 룸)' 183명(12.6%), '공원 등 외부 자연환경을 조성한 쉼터 공간' 171명(11.8%),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 154명(10.6%),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147명(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패밀리 룸이나 소모임 공간에 대한 요구는 개방형 응답에서도 빈번하게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가 기울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스텝가든과 외부 보행로를 조성하여 공원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희망하는 특화서비스의 경우, '인문학' 151명(10.6%), '예술(음악/미술)' 145명(10.2%), '영화' 130명(9.1%), '문학' 128명(9.0%), '진로/취업' 117명(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이 이용자층을 구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야의 서비스를 고루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응답자들이 공공도서관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도서관 이용 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도서나 잡지 등 풍부한 인쇄자료',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신간자료의 신속한 확보', '도서관 내부 공간의 배치' 등도 강조되었다. 전술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서관의 핵심은 '자료'라는 점도 이용

자들의 의견을 통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현황을 분석했을 때 사상구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이 희망하는 공간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보았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희망하는 공간은 '카페와 같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북카페)'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패밀리 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희망하는 특화 서비스 부분에서는 '웰빙', '인문학', '심리상담'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공간구성 뿐 아니라 장서관발과 서비스 프로그램 개설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 인근에 외국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조사에서는 해당 층의 응답결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연구 초기의 목적과 달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기에, 향후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여 도서관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책', '연구', '독서'는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이지만, 기존의 조용한 학습 공간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역공동체가 만나고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의 이미지가 대체하는 경향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추세에 더해 생태환경 강변도시인 사상구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에게 기대하는 바 '휴식', '가족', '자연', '자유' 등을 반영

하여 J도서관의 비전을 '모두가 편안한 우리 동네 거실'로 제안해 본다.

이에 J도서관 운영의 지향점은 1) 지역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 문화, 정보 요구에 대한 지원, 2)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하는 공간과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4) 복잡한 도시에서 자연친화적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2016)에서는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지역중앙관, 거점도서관, 분관, 작은도서관 등 4개로 나누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사상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덕포동에 소재한 사상도서관이 유일하며,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구 관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될 예정인 J도서관은 소재지와 규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중앙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며, 주례1-3동 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거점도서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사상구는 지역중앙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을 갖는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관내 학장동, 엄궁동, 모리1동 등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역시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활발한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기대해 본다. 그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J도서관 또는 사상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국가통계포털. [online] [cited 2019. 2. 10.] <<http://kosis.kr/index/index.do>>
- [2] 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간 구성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7-25.
- [3] 곽승진, 장덕현, 노영희, 강은영, 김정택. 2017. 울산대표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23-50.
- [4] 김하야나, 김기영. 2014.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이용자, 이용 중단자, 비이용자르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3): 201-226.
- [5] 노영희, 김윤정. 2019.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3-50.
- [6] 노영희, 박양하. 2017.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1): 45-77.
- [7]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8] 문화체육관광부. 2016.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9]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보도자료. [online] [cited 2019. 3. 12.] <[https://www.busan.go.kr/nbtnews/618049?curPage = &srchBeginDt = &srchEndDt = &srchKey = &srchText =](https://www.busan.go.kr/nbtnews/618049?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
- [10] 류태현, 고재민, 임채진. 2013.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9(11): 141-149.
- [11] 안창모, 박태병, 김진일. 1987. 지역시설의 복합화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7(2): 205-210.
- [12] 윤희윤, 오선경, 이재민. 2016.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인식조사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99-124.
- [13] 장덕현. 2020.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요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51-70.
- [14] 장덕현, 강은영. 2012. 부산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인문학논총』, 30: 201-223.
- [15] 최문정, 서은경. 2016. 서울소재 복합시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인식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4): 77-101.
- [16] 사상구청 홈페이지(문화시설). [online] [cited 2019. 3. 10.]

- 〈http://www.sasang.go.kr/tour/index.sasang?menuCd=DOM_000000603003005000〉
- [17] 사상구청 홈페이지(사상Vision). [online] [cited 2019. 3. 10.]
 〈http://www.sasang.go.kr/index.sasang?menuCd=DOM_000000104002001000〉
- [18]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online] [cited 2019. 2. 16.] 〈<https://www.libsta.g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online] [cited 2019.3.10.]
 〈<http://kosis.kr/index/index.do>〉
- [2] Kwak, Seung-Jin, Noh, Young-Hee and Shin, Jae-Min. 2017.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Library as a Multicultural I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7-25.
- [3] Kwak, Seung-Jin, Chang, Durk-Hyun, Noh, Young-Hee, Kang, Eun-Yeong and Kim, Jeong-Taek. 2017. "A Study on User's Perception Survey for Activation of Ulsan Representative Librar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3): 23-50.
- [4] Kim, Hayana and Kim, Gi-Yeong. 2014. "A Study on Factors to the Non-Use of Public Libraries in Users, Former Users and Non-Us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201-226.
- [5] Noh, Young-Hee and Kim, Yoon-Jeong. 2019. "A Study on the User Recognition of Library Complex Culture Sp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23-50.
- [6] Noh, Young-Hee and Park, Yang-Ha. 2017. "A Study of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y Service to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1): 45-77.
- [7]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9. *3r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d plan(2019-2023)*.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A manual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r public libraries*.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9] Busan Metropolitan City(Busan news) Press release). [online] [cited 2019. 3. 12.]
 〈<https://www.busan.go.kr/nbtnews/618049?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
- [10] Ruy, Tae-Hyun, Ko, Jae-Min and Lim, Che-Zin. 2013.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 of Public Libraries by Complexation Typ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9(11): 141-149.
- [11] Ahn, Chang-Mo, Park, Tai-Byung and Kim, Jin-Il. 1987. “A Study on mixed-use tendency by existing buildings in regional facility plann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7(2): 205-210.
- [12] Yoon, Hee-Yoon, Oh, Seon-Kyung and Lee, Jae-Min. 2016. “A Survey of Citizens’ Perceptions on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99-124.
- [13] Chang, Durk-Hyun. 2020. “Perceived Needs of Users toward Public Library Services in Busa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51-70.
- [14] Chang, Durk-Hyun and Kang, Eun-Yeong. 2012. “Citizen Perceptions and Demands on Public Libraries in Busan.” *The Journal of Humanities*, 30: 201-223.
- [15] Choi, Mun-Jung and Seo, Eun-Gyoung. 2016. “Analysis of User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n Public Libraries in Complex Facilities in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4): 77-101.
- [16] Sasang-gu Office Homepage(Cultural facilities). [online] [cited 2019. 3. 10.]
<http://www.sasang.go.kr/tour/index.sasang?menuCd=DOM_000000603003005000>
- [17] Sasang-gu Office Homepage(Sasang Vision). [online] [cited 2019. 3. 10.]
<http://www.sasang.go.kr/index.sasang?menuCd=DOM_000000104002001000>
- [18]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online] [cited 2019. 2. 16.] <<https://www.libsta.go.kr/>>